

현안과 과제

카다피의 몰락 이후
중동·북아프리카(MENA)의 향후 전망

1. 민주화 사태 이후 현황

○ (현황)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에서 시작된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지역 민주화 사태는 리비아의 내전 종식으로 일단락되었음

- 리비아 사태는 격렬하게 저항하던 카다피가 10월 20일 사망함에 따라 일단 종식되었으며, 시리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음
 - 민주화 시위로 독재 정권(튀니지-벤 알리, 이집트-무바라크, 리비아-카다피)이 붕괴된 국가들은 민주 정부 수립을 준비하고 있음
 - 한편, 시리아와 예멘 등지에서도 반정부 민주화 시위가 지속되고 있으나 정부의 강경 진압 및 국제 사회의 미온적 태도로 사태가 장기화
 - 하지만 당초 우려되었던 사우디, 이란 등 걸프지역(GCC) 국가로의 사태 확산은 이뤄지지 않았음
- 민주화 사태 이후 MENA 지역의 장기 독재 국가들의 정권교체와 민주화가 확산되며, 경제적으로는 시장의 개방이 더욱 확대될 조짐
 - 리비아 국가과도위원회(NTC)는 2013년 초까지 선거를 통해 이슬람 민주주의 국가 설립을 계획하고 있고, 튀니지와 이집트도 올해 안에 선거를 치를 예정
 - 또한 리비아 내전과 민주화 사태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복구하는 전후 복구 사업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와 시장 개방이 향후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리비아 사태는 종식되었으나 이후 MENA지역의 장기 독재 국가 및 왕정 국가들에서도 정권 교체 및 민주화 요구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

<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 개황 >



자료 : IMF, CIA.

○ (경제 현황) MENA 지역 국가들은 민주화 사태를 전후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심각한 실업난이 지속되고 있음

- 리비아 등 주요 국가들은 2010년 3~5%의 경제성장을 기록했으나 이번 민주화 사태로 인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
 - 이집트와 튀니지의 경우 2000년 이후 평균 5%에 가까운 경제성장을 기록했지만 민주화 사태에 따른 사회 혼란으로 경제성장률이 0%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됨
 - 리비아 경제는 대선진국 원유 시황에 따라 성장률이 급등락을 반복했으며, 올해 민주화 시위가 내전으로 악화되면서 원유 수출 중단 등의 영향으로 성장률의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MENA 국가들은 청년층의 비율이 높은 반면 정치적 혼란과 함께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현재 심각한 실업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 25세 이하 청년층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48%를 차지할 정도로 높지만 대부분 천연자원에 의존하고 있고 제조업이나 산업 발달이 미약하여 고용 여력이 부족한 상황
 - 평균 10%가 넘는 실업 문제의 지속은 고물가와 함께 민주화 사태를 촉발시키는 요인이 되었으며, 향후 MENA 지역에서의 추가적인 반정부 시위의 확산 가능성이 높음

<MENA 주요국가의 성장률 추이>
(단위: %)

국가	2007	2008	2009	2010
이집트	7.1	7.2	4.7	5.1
리비아	7.5	2.3	-2.3	4.2
튀니지	6.3	4.5	3.1	3.1
알제리	3.0	2.4	2.4	3.3
시리아	5.7	4.5	6.0	3.2
예멘	3.3	3.6	3.9	8.0

< MENA 주요국가의 실업률 추이 >
(단위: %)

국가	2007	2008	2009	2010
이집트	9.2	8.8	9.5	9.0
리비아	30.0	—	—	—
튀니지	12.4	12.6	13.3	13.0
알제리	11.8	11.3	10.2	10.0
시리아	9.2	10.9	8.1	8.4
예멘	16.2	—	—	—

자료 : IMF.

자료 : IMF, ILO, CIA.
주 : 리비아와 예멘은 2004년 기준.

2. 향후 MENA 정세 및 시장 변화 전망

○ (불안 속 민주화의 진전) 내부 분열과 소요 지속 등 불안 요인들이 존재하나 MENA 지역 국가들은 점진적으로 민주화의 진전을 이뤄갈 전망

- 민주화 정권 수립 중

- 튀니지 : 23일 총선을 통해 의회가 구성되고 향후 헌법 제정과 민주 정부를 수립해 나갈 예정임
- 이집트 : 11월 총선을 앞두고 있으나 이슬람 세력의 부상으로 향후 이스라엘 및 서방과의 관계 수립이 관건
- 리비아 : 국가과도위원회 및 지도층의 분열과 부족 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 우려되나 선거를 통해 의회와 정부가 출범할 것으로 전망

- 민주화 소요 진행 중

- 시리아와 예멘 등지에서는 최근까지 반정부 시위가 지속되어 희생자가 수천 명에 이르는 등 격렬한 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음
-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국제사회의 개입이 불투명해졌고 사태는 더욱 장기화될 전망

- 민주화 소요 부재

- 사우디 등의 국가는 민주화 사태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민심수습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권력 세습 종식과 헌법 제정 움직임이 확산될 전망

< 중동·북아프리카(MENA) 국가들의 정치·사회 지표 >

민주화 사태 현황	국가	통치자 (집권기간)	불안정지수	부패지수	민주화지수
민주화정권 수립중	튀니지	벤 알리(34년)	49.3	4.3(59위)	2.79(144위)
	리비아	카다피(43년)	71.0	2.2(146위)	1.94(158위)
	이집트	무바라크(30년)	65.6	3.1(98위)	3.07(138위)
민주화소요 진행중	예멘	살리흐(33년)	86.5	2.2(146위)	2.64(146위)
	시리아	바샤르(11년)	67.1	2.5(127위)	2.31(152위)
	바레인	하마드(12년)	36.4	4.9(48위)	3.49(122위)
민주화소요 부재	알제리	부테플리카(12년)	49.7	2.9(105위)	3.44(125위)
	사우디	압둘라(6년)	52.4	4.7(50위)	1.84(160위)
	이라크	알 말리키(5년)	65.6	1.5(175위)	4.00(111위)

자료 : EIU, Transparency International.

- 주 : 1) 불안정지수는 전 세계 178개 국가 중 100(가장 불안정)을 기준으로 한 지수임
- 2) 부패지수는 전 세계 178개국 중 0(가장 부패)~10(가장 청렴)을 기준으로 국가의 부패정도를 나타낸 지수임
- 3) 민주화지수는 전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민주화된 정도를 10(가장 민주화)를 기준으로 나타낸 지수임

- (복구사업 등을 통한 경기 활성화) 민주화 사태 이후 경제 재건 사업과 민심 수습 차원의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면서 MENA 지역 경기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 리비아 : 전후 복구비용을 과거 이라크 전후 재건 비용과 비교하여 추정된 결과 약 1,530억 달러에 이를 전망
 - 2010년 리비아 GDP는 713억 달러이며, 전후 복구비용은 GDP의 2.2배인 약 1,530억 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됨
 - 현재 리비아 정부는 전후 복구 사업을 위해 수년간 약 1,200억 달러 가량을 투자할 계획에 있음(부록 참조)
 - 특히 원유 수출 재개와 더불어 해외에 동결된 1,600억 달러 규모의 리비아 동결 자산 해제 시 복구 사업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
 - 이집트 : 민주화 시위로 인해 국가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은 만큼 경제 재건 및 정상화를 위해 대규모 국책 사업을 추진할 예정
 - 민주화 혁명 이후 민심 수습과 경기 부양 차원에서 프로젝트 발주 물량이 확대되고, 전력망 확충 및 도로, 에너지 시설 등 대형 인프라 사업 추진 전망
 - 나일강 서안의 240억 달러의 대규모 도로 및 녹지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2012년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100만호 건설 프로젝트 착수 예정¹⁾
 - 튀니지 : 민주 정부의 수립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국제사회의 지원과 투자가 이어지면서 경제가 다시 활성화될 전망
 - 지난 5월 주요8개국(G8) 정상회의에서 2013년까지 이집트와 튀니지에 200억 달러의 투자 계획이 발표되었음
 - 다만, 수출과 관광 등 유럽 경제에의 의존도가 높은 만큼 유럽 재정 위기와 경제 둔화의 영향으로 본격적인 경제의 활성화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

□ 리비아 전후 복구 비용의 추정

- 과거 이라크 전후 재건 비용 추정 결과를 기초로 하면 GDP의 약 2.2배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
 - 1차 이라크 전쟁 이후 재건 비용은 2004~2007년까지 약 55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 ("Paying for Iraq's Reconstruction", World Bank and U.S. Congressional Budget Office, 2003)
 - 이를 당시 이라크 GDP와 비교하면 재건 비용은 GDP의 약 2.2배 수준
 - 리비아의 전후 재건 비용이 이라크와 동일한 비율로 소요된다고 가정할 때 2010년 리비아 GDP(713억 달러)의 2.2배인 약 1,530억 달러로 추정

1) KOTRA

- 알제리 등의 독재 국가에서는 민주화 사태에 대한 학습효과로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
 - 알제리에서는 인적개발과 각종 인프라 개발 등을 계획하고 약 2,900억 달러를 투자함으로써 대규모 경기 부양을 통한 민심 수습을 추진
 - 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예멘과 시리아에서도 사태가 진정될 경우 민심 수습 차원의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
 - 한편 소규모 시위 사태를 경험한 오만 등의 국가에서도 사태 이후 국가 기간 산업과 의료부문의 대형 프로젝트를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음²⁾
-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의 걸프지역의 안정된 국가들도 민심을 사전에 달래기 위한 민생 지원과 함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추진
 - 사우디 정부는 50만개의 주택건설을 위해 고용 활성화를 위해 약 2,500억 리얄(약 700억 달러)규모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
 - 한편 쿠웨이트에서는 2010년부터 SOC확충과 석유 및 플랜트 건설 등 1,250억 달러의 프로젝트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

< 민주화 사태 이후 MENA 주요국가의 경기 부양책 >

국가	경기 부양책
알제리	- 청년 우선고용정책 및 200만 호 주택건설 조기 시행 - 총 2,860억 달러 규모의 SOC 개발 계획
오만	- 8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각종 도로, 공항, 항만 등 SOC 개발 프로젝트 추진 - 3억 6,000만 달러 규모의 무수카트 종합병원 프로젝트 추진
사우디	- 주택청 예산 40억 달러, 부동산 개발기금 107억 달러 증자 - 공공부문 종사자 임금 15% 인상 - 사회보장혜택 가구 수 확대 - 저소득층 대상 집수리 및 수도·전기요금 보조
UAE	- 기초생활품 가격을 1개월간 최대 40%인하 - 전력 및 담수부문에 약 15.5억불 긴급투자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칼리파펀드' 기금 확대 (현재 2.7억 달러에서 5.4억 달러 규모로 확대)
이라크	- 무기구입예산 9억 달러를 식량구입 및 배급 예산으로 전환 - 발전설비확충, 서민주택건설에 257억 달러 배정
쿠웨이트	- 석유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신도시, 항만 등 SOC확충 - 각 가정당 400만원씩 총 40억 달러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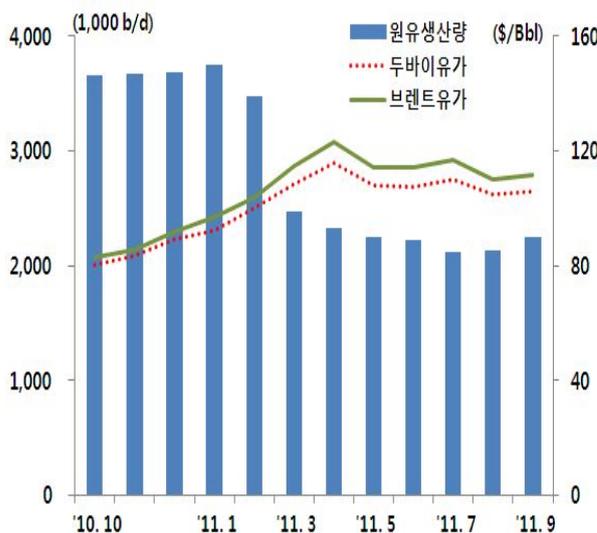
자료 : KOTRA

2) KOTRA

○ (국제 유가 안정세 주도) MENA 지역의 민주화로 정치적 불안이 진정되고 리비아 등의 석유 생산이 정상화되면서 향후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찾게 될 것으로 전망

- 6개월간 지속된 리비아 내전으로 원유 생산이 크게 감소했고, 중동지역으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
 - 지난 2월 25일 시작된 리비아의 시위가 내전으로 격화되면서 원유 생산량이 1월 152만b/d에서 급감하여 7,8월에는 생산 중단 사태까지 빚어짐
 - 알제리 등지의 일부 소요 사태가 진행 중인 국가에서도 원유 생산이 감소했으며, 반면 사우디 등의 걸프지역 산유국들은 유가 안정을 위해 원유를 증산
 - 잇따른 중동 사태의 악화 및 리비아 원유 생산 차질로 국제유가(두바이유)는 배럴당 116달러에 육박하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음
-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와 경기 둔화 우려 전망 등으로 향후 원유 수요의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MENA 지역의 원유 생산이 정상화된다면 향후 국제 유가 안정세에 크게 기여할 전망
 - 유럽 등 선진국 정유사가 리비아 원유의 대부분을 소비해왔다는 점에서 리비아 원유 생산 재개는 향후 브렌트유 가격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
 - 다만 중국 등 신흥국의 견조한 성장세와 일본 경제의 회복, OPEC의 공급감소 전망 등은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존재

< MENA 주요국의 원유생산량과 유가 추이 >



자료 : Petronet
 주 : 주요국은 민주화 소요를 겪은 리비아, 알제리, 이집트, 시리아만 포함

< 주요기관들의 국제유가 전망 >

(단위: \$/Bbl)			
기관	기준유종	2011	2012
JP Morgan	브렌트유	112.0	115.0
Morgan Stanley	브렌트유	120.0	130.0
Barclays	브렌트유	112.0	115.0
CGES	브렌트유	114.7	101.9
CERA	두바이유	104.3	101.3
	브렌트유	102.0	104.6
PIRA	브렌트유	112.3	108.7

자료 : 국제금융센터

3. 시사점과 대응 과제

- (시사점) 카다피의 몰락 이후 MENA 국가들의 민주화 및 경제 개방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며 이는 우리 경제에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리비아 등 내전 이후 경제 재건 사업과 각국의 인프라 구축 사업의 활성화에 따라 우리 건설업체들의 건설 관련 수주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리비아뿐만 아니라 UAE와 사우디 등 GCC 국가들이 고유가로 인해 오일머니가 축적된 만큼 석유 생산 설비와 발전소, 플랜트 등 발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2011년 리비아 내전 등 여러 악재로 인해 중동 건설 수주액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수주액을 합하면 전체 수주액의 63%에 해당하는 약 500억 달러에 이를 전망
 - MENA지역의 경제 재건 및 민생 복구 등으로 인한 수요 확대로 국내 기업의 소비재 수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각국 정부가 급여 인상과 각종 보조금 지원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
 - 2010년 MENA지역 수출은 284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2011년에도 민주화 시위 등의 영향이 있었지만 9월까지의 수출(누적액)이 235억 달러를 기록하여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부록 참조)
 - 오일머니의 투자여력이 큰 MENA 국가들의 민주화와 경제 개방이 이뤄질수록 시장의 확대 가능성이 크고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도 높음
 - 민심 수습과 경제 개발을 위한 MENA 각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예상됨에 따라 건설 및 인프라 관련 사업의 진출의 기회
 - 과거 오랜 중동에서의 건설 경험과 노하우, 인적&물적 네트워크 등은 향후 대규모의 인프라 사업 진출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

○ (대응 과제) 복구 사업 등의 확대에 따라 건설과 인프라 수주를 확대하는 한편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비시장을 개척하는 진출 전략과 지원책이 필요

- MENA 국가들의 복구 사업 및 각종 인프라 개발 사업에 적극 진출하여 해외 건설 수주를 확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함
 - 중동 건설 시장에서의 오랜 노하우와 경험 및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리비아 전후 복구 사업뿐만 아니라 각국의 인프라 개발 사업 수주를 확대
 - 각국의 건설 및 인프라 개발, 건설 수요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수주 전략과 진출 기업들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책 등의 마련이 시급

- 건설 및 인프라 개발 외에 고부가가치 소비제품 시장으로서 국가별 상황에 맞는 중장기적인 진출 전략의 마련이 필요함
 - 금번 민주화 사태에서 청년들의 SNS의 활용이 부각되었듯이 MENA 지역의 인터넷과 휴대폰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IT 시장의 개척 및 진출 전략을 마련해야 함
 - 리비아 등의 산유국들은 석유 수출로 인해 소비 여력이 높은 만큼 자동차, 전자제품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의 내구성 소비재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다만, MENA 지역의 정치적 혼란의 지속과 이슬람 세력의 집권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사전에 면밀한 정세 파악과 신중한 교류 전략이 요구됨
 - 과거 군부 독재 또는 국왕을 중심으로 한 통치체제가 점차 다원화되고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로 변화가 예상되며 각국이 상황에 따라 상이한 정치 체제의 등장이 예상
 - 친미 정권의 붕괴와 이슬람 세력의 집권에 따른 새로운 교류 전략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기존의 석유 자원 개발 및 건설 시장 진출을 위한 외교라인 보완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

최성근 선임연구원(csk01@hri.co.kr, 2072-6223)

김천구 연구원 (ck1009@hri.co.kr, 2072-6211)

<부록>

< 리비아 재건사업 및 투자 계획 >

분야	세부 분야	투자 금액(억 달러)
건축	도시 개발	740
	대학교 신축	11
	주택 건설	10
	호텔 및 숙박 시설	1
	기타	73
산업설비	가스 시설(LNG)	66
	발전소 건설	52
	석유화학 시설	33
	석유&가스 생산 시설	35
	정유 시설	21
	가스처리 시설	1
	제련소 등 기타	149
토목	도로, 항만 등 각종 인프라	33
	상하수도	3
총계		1,228

자료 : ME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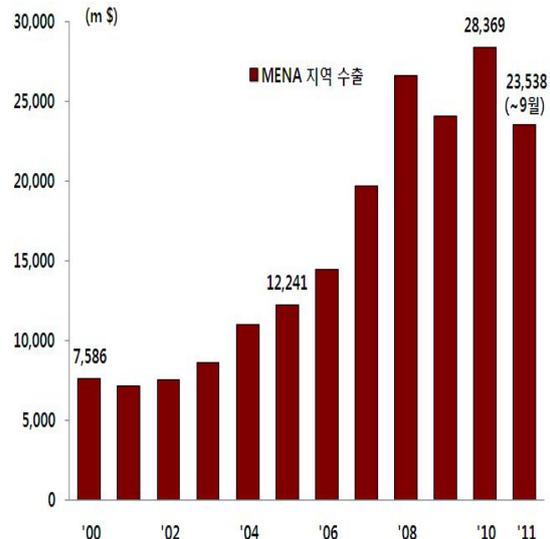
< 해외건설 수주 실적 추이와 전망 >

(단위 : 백만 달러)

	2009	2010	2011
중동	35,746	47,249	43,000
아시아	10,909	18,076	22,000
중남미	717	2,067	7,000
아프리카	1,209	2,447	6,000
기타	567	1,734	2,000
합계	49,148	71,573	80,000

자료 : 해외건설협회

< 對 MENA 지역 수출액 추이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MENA 국가들은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20개 국가를 포함